

오늘은 성탄주일, 31일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드려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 1부 예배는 없고 2-4부 예배드리게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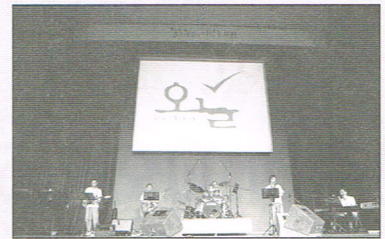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주일이다. 주일 예배는 1-4부까지 모두다 정상적으로 드리게 된다. 특별히 2부 예배 때는 초등부 '작은 제자' 들의 예수님 탄생 축하 공연과 3부 예배 때에는 유치부 아이들의 예수님 탄생 축하 공연, 4부 예배 때에는 살롬찬양대의 특선이 있을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은 이번주 토요일이다. 31일 밤 11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2005년 한 해를 영상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정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신년을 예배로 새롭게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온 성도

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게 된다. 예년에 보면 대예배실에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밤 11시 30분보다 좀 더 일찍 11시까지 교회에 도착하기를 당부 드린다. 11시부터 찬양과 영상,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떠나가는 2005년을 잘 보내고 새롭게 다가오는 2006년 새해를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 안에서 희망차게 맞이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다음 주일은 1월 1일 새해 첫 날로 신년주일로 지키게 된다. 2006년 새해 교회 표어는 "하나님

을 즐거워하라"이다. 송구영신 예배를 31일 밤늦게 드리고 귀가하는 관계로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는 1부 예배만 쉬고 2-4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모두 다 드리게 된다. 주로 1부 예배에 참석하던 성도들은 다음 주일 신년 주일에는 1부 예배가 없음을 미리 잘 숙지하고 다음 주일만, 2부나 3부 다른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 또한 오늘 성탄 주일에는 성탄 축하 떡이 예배 후 로비에서 제공된다. 그리고 오늘 성탄 주일과 다음 주일 신년 주일에는 국수 봉사가 없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오늘" 4부 예배

오후 2시, 살롬찬양대 성탄감사예배로 드려



오늘 4부 예배는 3부 담당 살롬찬양대를 초청하여 성탄 음악회로 예배

를 드리게 된다. 예배와 교회가 낯선 이웃들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박태준의 '동무생각', 윤용하의 '보리밭' 과 같은 가곡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징글벨', '성탄장식' 등의 크리스마스 캐롤과 폴루티스트 박성민 박사와 이윤영 박사의 이중주와 피아노 독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살롬찬양대는 어제(24일)도 3부 지휘자인 이동훈 집사의 곡인 '글로리아'로 칸타타를 했는데, 연이어 오늘도 4부 예배를 통하여 성탄 감사예배를 드리게 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특별히 아기 예수 탄생을 맞이해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당부한다.

살롬찬양대, 단국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송년음악회 열어



살롬찬양대에서는 지난주일(18일) 환자들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로비

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였다. 살롬찬양대원 70여명과 이동훈 지휘자가 초청한 찬조 출연자와 병상에서 쓸쓸하게 크리스마스와 송년을 보내야하는 700여명의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을 위한 05송년음악회를 아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단국대학교 천안병원에서는 문화의 시

각지대에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과 연말연시를 병상에서 보낼 환자들과 가족들의 위문을 위하여 기획하게 되었고, 현재 단국대학교 음대교수로 재직 중인 이동훈 교수가 지휘하는 주님의교회 살롬찬양대를 초청하여 공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1부는 5개 병동으로 이루어진 병원을 살롬찬양대 대원들을 5개조로 편성하여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선물과 복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였고 아울러 주님의교회에서 준비한 환자전도용 타월을 700여개 전달하였다. (3면에서 계속)

안양 교도소 청각 장애인 수감자 면회 다녀와



계속되는 영하 10도 안팎의 혹한과 많은 눈까지 내린 21일(수) 복지선교부에서는 담당 교역자인 신화식 목사, 신형섭 집사, 황영균 집사, 이용림 집사, 최영숙 집사, 김영숙 집사, 청교회 회원들과 함께 안양 교도소로 청각 장애인 수감자 면회를 다녀왔다. 그들을 만나는 순간 반겨주는 얼굴 표정과 편안한 표정, 그들이 보여주는 친근감에 가슴이 뭉클했다. (4면에서 계속)

가정사역팀, 2005년 '나의 가정 하나님 나라' 사역자 1차 정기모임가져



가정사역
팀은 12월
1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주님
의교회 작

은 식당에서 제1차 정기모임을 가졌다. 그 동안 걸
어온 길을 영상을 통해 되돌아보며 지난 해 하나님
의 가정훈련학교로 부터 시작하여 꼬박 1년여간 동

안 했던 행사와 나누었던 시간들을 영상으로 돌아
보았다. 어찌 지나갔는지 모르는 시간들 속에서
각 부부의 얼굴은 하염없이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사역자 컨퍼런스를 통해 새로이 이
사역에 비전을 가지게 된 부부들도 본인들의 사진
이 나오는 것을 보며 입가에 환한 미소를 머금었
다. 다음 순서로는 정 회성 목사가 2006년 가정사
역방향을 소개했다. 내년에는 소그룹 중심체제로
가정사역이 운영될 것이며 소그룹을 지원하기 위
한 다양한 행사들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연이어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가지게 될 정기모임의 첫
번째인 그 날 모임의 강의는 온누리 교회에서 5년
간 가정사역분야를 담당해 온 공진수목사와 함께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부부대화, 가족대화>에 관
하여 90여분간 강의와 워크숍을 가졌다. 대화에 앞서
우리는 먼저 인간의 죄성과 의인됨을 인정해야 하
며, 대화는 관계가 열릴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가슴의 언어, 영의 언어가 탁월하
며, 그것이 바로 진실, 생명, 희망의 언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부부간의 대화수준을 점점하는 시
간도 가졌다. 말 속엔 엄청난 권세가 있으므로 진
실된, 희망의, 또한 생명의 말을 하지는 말씀을 하
셨으며 또한 대화할 때는 먼저 긍정적인 표현으로
시작하여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것도 중
요하다고 하였다. 저절로 습득되지 않는 대화의 기
술은 꾸준한 연습과 훈련만이 대화의 질적 향상을
이룬다면 연습, 반복, 지속, 그리고 다시 시도하라
는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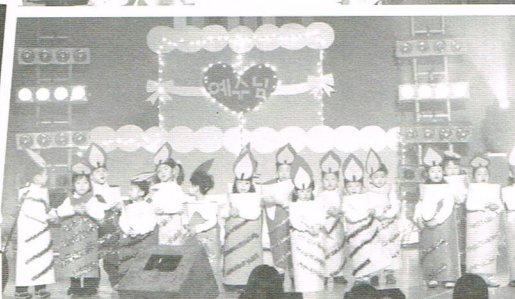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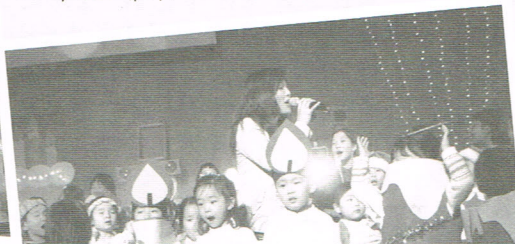
이번에 가진 가정사역팀의 첫 번째 정기모임에 이
어 2006년에도 가정사역팀은 소그룹 모임과 더불
어 <나의 가정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아래, <아
버지 학교>, <가정의 달 행사>, <하나님 나라 만들
기>, <사역자 컨퍼런스> 등 큰 행사들을 개최할 것
이며 3개월에 한번씩 사역자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
이다. 2006년 한 해엔 더욱 주님의교회의 모든 가
정과 부부 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회
복되며 하나되는 건강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
가 임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수요일, 성탄축하 교회학교 발표회 시간 가져

과 찬양, 위십 등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
였다. 특히 유치부
는 "첫 번째 크리스
마스"란 제목의 노
래와 율동으로 이루
어진 노래극을 공연하였다. 마
리아의 수태고지로부터 말구유
에 나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
기까지의 이야기에 관한 극이었
다. 아이들의 감적인 율동과 의
상이 돋보였다. 유년부에서는
수화찬양을 준비했는데, 천사복
장을 한 천사 같은 세 명의 어린
이들이 나와서 "온누리에 사랑
과 평화가"란 제목
으로 공연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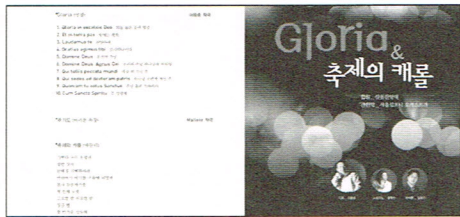
각 교회학교 별로 의상과 소품
과 율동을 정성껏 준비한 것이
돋보였고, 교회학교 교사들의
노고가 크게 엿보이는 훌륭한
공연이었다. 3부에는 미니 콘서
트가 열렸다. CCM 사역자인 지
영의 "사랑이 가득한 밤, 크리스
마스" 등 감미로운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에는 교회학
교발표회에 참가한 모든 아이들
과 청소년들이 무대 위로 올라
가서 같이 노래하는 순서가 있
었다. 관객들과 부모와 교회학
교 교사들도 한마음이 되어 즐
겁게 공연을 보고 사진을 찍으
며,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
으로 축하했다.

지난 수요일(21일), 저녁 7시
30부터 대에배실에서 교회학교
성탄축하발표회가 있었다. 전체
총 3부로 진행된 이 행사는 먼
저 1부에서 문동학 담임목사의
마 1:22~23, "그의 이름은 임마
누엘이라 하리라"란 제목의 말
씀을 들었고, 2부 순서는 본격
적인 교회학교 발표회시간을 가
졌다.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
지 노래극



"Gloria & 축제의 캐롤"

어제 토요일(24일) 19:30, 살롬찬양대 주관으로 음악예배 드려



어제 성탄절 전야에는 우리 교회에서 음악예배가 있었다. 올해는 3부 살롬찬양대가 주관하고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며, 연주한 작품은 칸타타 'Gloria'와 '축제의 캐롤'이었다. 특별한 점은 칸타타 'Gloria' 10개 악장 모든 곡을 라틴어로 불렀는데, 이를 위해 살롬찬양대는 지난 8월부터 이번 성탄절 전야 음악예배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왔다. 칸타타 Gloria는 3부 살롬찬양대 지휘자이며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작곡 및 합창지휘 전공

교수로 재직중인 이동훈집사가 10개의 악장으로 나누어 직접 작곡한 작품이다. 음악예배의 두번째 순서는 Mallote 작곡의 '주기도'를 바리톤 독창으로 드렸으며, 세번째 순서는 '축제의 캐롤'로서 성탄절 전야의 기쁨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다. '축제의 캐롤'은 찬송가에 있는 성탄 찬송과 일반 캐롤을 모아 성명 미상의 편곡자가 편곡한 원곡을 이동훈 지휘자가 이번 음악예배를 위해 합창과 관현악으로 다시 편곡한 곡이다. 이번 성탄 음악회를 통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들이 함께, 'Gloria'를 통해 주님께 영광드리며, '축제의 캐롤'을 통해 주님오심을 같이 기뻐하고 즐기는 뜻 깊은 성탄절 전야가 되었다.

오늘 기도



2005. 12. 25

4-9구역, 길가에교회 성탄 트리 장식해줘



김선희 집사가 구역장으로 섬기는 4-9 구역원들은 길가에교회 성탄 트리를 장식해주었다. 대림절 기간 중에 번식한 길가에교회에 무언가 도울 것이 없을까 찾던 중 교회 앞에 성탄 트리를 만들어 주기로 결심하고 방울에 리본을 달고 모든 구역

원들이 한 마음으로 성탄 트리를 예쁘게 장식해 주었다. 구역원들은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불을 밝히고 구역원들의 해맑은 미소와 사랑을 이트리 장식을 통해 나누게 되었다. 매서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년간 여성구역으로서 서로의 개성이 다 다르지만 서로 잘 어울리고 이제는 서로를 채근하면서 가족 같은 교제를 이루고 있는 4-9 구역은 광장동부터 신당동, 대치동, 분당, 망우동까지 서로 사는 곳은 다르지만 만나는 기쁨으로 하나되어 아름다운 미소와 선한 사랑과 나눔으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있는 구역이다. 이번에 길가에교회 성탄 트리를 만들면서 모든 구역원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1면에 이어서)

살롬찬양대, 단국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송년음악회 열어

2부는 살롬찬양대 주관으로 송년 음악회를 가졌는데 영살롬 앙상블의 중창과 단국대교수 조유신 선생의 오보에 독주와 이정민 대원, 테너 독창과 피아노독주, 이찬주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의 독주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고, 작은 손을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는 환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따뜻하게 녹이는 훌륭한 연주였고, 또한 살롬찬양대원 소프라노 독창 김지연 자매가 환자들이 아픔을 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연주를 보여주는 등 매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이윤영 선생의 플루트 독주 연주가 있었다.

이 날 병원 로비를 가득매운 환자들, 휠체어에 의지하여 온 환자들과 링거를 맞으면서 온 환자들 모두 환우들과 환자 가족들 그리고

병원직원들의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받았지만 이 행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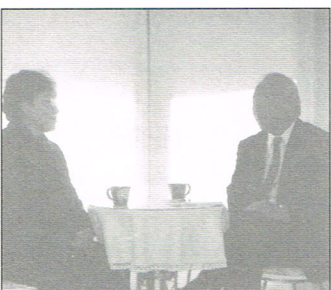
천안을 빠져나와 경부고속도로에 몸을 싣고 귀경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걱정했지만 뺑 뚕린 버스 전용차선 덕분에 예상보다 빠른 오후 8시 경에 귀가 할 수 있었다. 이번 뜻 깊은 송년 음악회 공연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었기에 주일 3부 예배후 서둘러 다녀온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병원 선교팀과 협력하여 이러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기대한다.

The 1st Jesus Photo Friends Exhibition

양육 클래스 중 매주일 오후 1시에 모여 사진을 공부했던 사진학교 2기 16명의 수강생들이 사진학과 교수 임근원 집사의 지도를 받아 미약하지만 종강 기념으로 51점의 작품을 전시하게 된다.

장소는 지하 소식당이다. 양육 과정중 가까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공원에서부터 양수리까지 다녀오면서 찍은 소중한 사진 전시회에 많은 성도들의 즐거운 관람을 기대한다.

중보기도 행정실 새롭게 단장해



5층 중보기도 행정실이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가 가득한 장소로 새롭게 단장되었다. 중보기도 행정실이 새롭게 단장됨에 따라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팀별 기도회 모임을 행정실 모임 방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향기로운 장로와 박두리 권사 내외가 새롭게 단장된 중보기도 행정실을 방문해 주어 축하와 격려를 해주었다.

지난 주일 김성관 목사 밀알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지난 3년간 부목사로 시무했던 김성관 목사가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밀알교회(강동노회 소속)의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지난 주일(18일) 오후 3시 밀알

교회에서는 김성관 목사 부임감사예배를 드렸다.

문동학 주님의교회 담임목사가 설교를 하고 주님의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했다. 밀알교회 성도들과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밀알교회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예배 후에는 밀알교회에서 준비한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친교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1면에 이어서)

안양 교도소 청각 장애인 수감자 면회 다녀와

신형섭 집사의 기도와 신화식 목사의 눅 2:11~14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이 순간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이 순간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후회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교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성탄절의 참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었다.

대체로 무거운 죄를 짓고 장기수로 복역

중인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비록 약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믿음과 소망 중에 바라보고 하나님 손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인생, 그것이 값진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었다. 또한 비록 수감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였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는 기도 속에 서로 팔씨름도 해보고 수화로 가벼운 인사도 나뉘보며 서로의 말 없는 눈빛 속에서 내내에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돌아왔다.

다음 주 수요일, 양육 클래스 수료식 가져

2005년 2학기 양육클래스가 9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12월 초까지 진행되었다.

가을 학기 동안 총 20여개의 강의가 개설되었고 목회자와 평신도 전문인들이 개설된 각 과목의 강사로 사역하였다.

이번 가을 학기 양육 클래스 수료자는 대략 600여명이다. 한 과목당 평균 30여명이 참석하

였다. 이번 가을 학기를 마감하는 양육 클래스 수료식이 28일 수요일 예배 시간에 있을 예정이다.

2학기 양육 클래스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 수료의 기쁨과 양육 받은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유년부, 도전! 골든벨 시간 가져



18일(주일), 유년부에서는 ‘도전! 성경 골든벨’ 행사가 열렸다. 총 100여명의 유년부 아이들이 참가했고, 약 40분간 열띤 대회가 진행되었다. 교사들은 이미 2주전에 30문제의 성경예상 문제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공부하게 한 다음 그것을 기초로 성경골든벨 대회에 참가하도록 했다. 마지막 암송구절과 예상문제의 문제에서 결국 우승자가 가려졌다. 시작 전에 사회자가 성경 골든벨에서 문제를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신이 모르는 문제는 정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용기를 가진 유년부 어린이가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경 골든벨 대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먼저 20문제를 거쳐 약 10명의 어린이가 가려졌다. 그리고 다시 패자부활전으로 5명의 어린이가 본선에 올라왔다. 본선문제는 예배시간에 전한 말씀을 기초로 문제를 냈는데, 마지막 2명의 어린이가 올라왔다. 두 어린이의 승부가 가려지지 않아서 암송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문제로 냈고, 드디어 2학년 최찬우 군이 도전 성경 골든벨 1등이 되었다. 나머지 아이들도 끝까지 응원하며 격려해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이번 도전 성경골든벨을 통하여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열정을 다시 보게 되었고, 유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유년부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은 기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4부 전도예배 <오늘> 연극팀 팀원 모집합니다

<오늘> 연극 팀에서는 배우와 스텝으로 활동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4부 전도예배에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 중에서도 연극은 성경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문화 예술적 매체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예배의 연극은 기존의 성극과는 달리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공감하고 깊이 생각해보며 다각도로 질문해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10분에서 15분 내외의 길이로 고전적인 드라마 형식에서부

터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형식까지 다양한 연극형식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주 1회 정기적인 모임에서는 화술과 신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공연연습은 공연일정에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전도예배에서 연극이 지니는 중요성을 실감하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자 하시는 열정을 가진 분이면 성별과 연령의 제한 없이 환영합니다.

연락은 이 호 목사 (011-496-2334), 최명숙 팀장 (016-723-3575)에게 신청해주세요.

06년 1월 1일 신년 주일 “오늘”

다음 주 신년주일 4부예배 “오늘”에서는 새날에 대한 컨셉으로 예배를 드린다.

여느 날이나 다름없지만 특별히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날의 의미와 시간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본다. 변함없이 오늘 연주팀의 아름다운 음악이 주제를

표현하며, 영상을 통해 주제를 공감하는 순서가 준비된다. 새해 첫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교회와 예배를 친근하게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교우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영아부, 성경체험 학습 시간 가져



11일 영아부에서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성경체험학습을 했다. 제목은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영아부 아이들이 베들레헴 구유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진 찍는 시간을 가졌다. 아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영아부 아이들이 가장 귀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히 오신 예수님을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뜻 깊은 귀한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심어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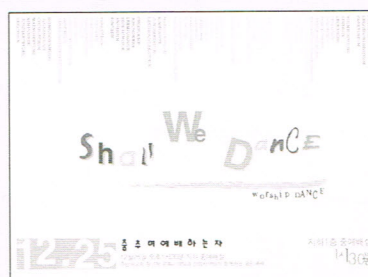
청년공동체 크리스마스 모임

어제 토요일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청년부에서 주최한 크리스마스 모임이 있었다. 신천에서 이루어진 노방찬양전도와 식사, 그리고 함께 모여 친교를 위한 선물교환과 간단한 게임과 밤 깊은 대화가 함께 이루어졌다. 성탄의 의미들이 상업적으로 물들어 서로간의

년회 분위기로만 물들어가는 시대에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아름다운 관계와 만남을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들로 드러지기 위한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성탄의 본질적 의미를 잘 살린 청년들의 성탄 모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청년공동체 크리스마스 모임



게 이루어졌다. 성탄의 의미들이 상업적으로 물들어 서로간의 선물교환과 가족들의 외식과 친구들과의 송년회 분위기로만 물들어가는 시대에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아름다운 관계와 만남을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들로 드러지기 위한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성탄의 본질적 의미를 잘 살린 청년들의 성탄 모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어제 토요일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청년부에서 주최한 크리스마스 모임이 있었다. 신천에서 이루어진 노방찬양전도와 식사, 그리고 함께 모여 친교를 위한 선물교환과 간단한 게임과 밤 깊은 대화가 함